

- 제 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一. 신앙촌(信仰村)이란?
 二. 첫째신앙촌·소사신앙촌·첫째울타리
 1) 소사신앙촌
 2) 소사신앙촌이 건설된 장소
 3) 소사신앙촌 생활
 4) 영모님이 세운 하늘의 법 앞에 쓰러져가는 신앙촌사람들
 5) 노구산 집회: 기우계
 6) 소사신앙촌의 호사다마(好事多魔): 영모님의 구속과 4.19혁명
 7) 영모님의 구속 동기
 8) 영모님의 재판
 9) 불법적으로 영모님을 처단 시도
 10) 마귀당 총회(總會)를 결성하다: 모세를 모반한 고리당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34회)

제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넘어갔다. 안찰한다고 속임수를 써서 현금을 사기했다는 쪽으로 몰고가기 위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했다.

다) 감람나무와 동방의인이라고 속여 사기쳤다

그 다음은 감람나무와 동방의인에 대해서다. 당시 재판장은 처음 들어보는 감람나무와 동방의인에 대해서 영모님을 사기죄로 모는데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듯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재판장이 많은 목사들을 통하여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재판 때에 판사실 에까지 목사들을 오라고 해서 열심히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재판장이 안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목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장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점이다. 앞에서 누누이 설명하였지만 당시의 목사들은 감람나무 동방의인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상태였다. 그러나 목사들이 재판장에게 뭐라고 알려주었는지 들어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다.

목사들을 통하여 엉터리 자문을 받은 재판장은 이번에는말로 박 장로를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좀더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당시 기독교 총회장으로 있던 유호준 목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총회장이란 기독교의 총수가 아닌가! 그러나 총회장을 증인으로 세우면 신학공부도 못한 박태선 장로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박 장로를 사기죄로 형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던 것이다. 신학공부도 많이 해서 신학박사이고 기독교의 총책임자인 총회장이기 때문에 성경에 무식한 박 장로에게 완승을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물론 유호준 목사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였다. 교인들도 많이 따라왔다.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소사신앙촌 정문(현재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없어졌다)

재판석에 앉은 재판장은 나오자마자 유호준 목사를 불러 세우고 영모님을 심문하기 시작하였다. 재판장은 너무나도 자문을 많이 받아 자신만만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그랬는지 영모님에게 심문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실언을 하였다. "박태선 피고는 감나무인가?"라고 물었던 것이다. 돌연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죄수복을 입고 앉아계신 영모님을 보고 눈물짓던 교인들이 재판장의 '감나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재판장은 논치를 못 채고 다시 물었다. "피고는 감나무인가?" 또 한 번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때 영모님은 정색을 하고 "네, 감람나무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고쳐서 답변을 하였다. 그랬더니 재판장은 유호준 목사를 불러 "유호준 증인은 박 장로가 감나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역시 '감나무'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다.

재판장이 영모님 재판을 생소한 종교 재판으로 끌고가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었고 무리였다. 어떻게 할려고 그 심오한(深奧) 종교의 원리내용까지 깊이 들어가서 재판하려고 달려든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다. 전국 목사들과 신학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감람나무란 문제를 들고 나오는 재판 자체가 무리요 실수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감람나무'를 '감나무'로 부르는 무리한 재판을 하게 된 것이다.

어떻든 재판장의 질문을 받은 유호준 증인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앙의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으나 이 감람나무라는 용어는 상징적인 용어로 구약시대에 이미 지나간 인물들에 대한 명칭이기 때문에 박 장로가 감람나무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라고 점잔을 피우면서 답변을 하였다. 유호준 목사의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오자 영모님은 기뻐했다는 듯이 벌떡 일

어나시더니 "재판장님! 감람나무란 지나간 인물이 아니고 지금 나타날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나간 인물이라면 왜 신약 묵시록 11장에도 똑같은 감람나무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감람나무는 호세아서 14장 5절에 이슬이라고 하였습니디. 나 박 장로는 이슬은 해를 내리고 또 향기가 진동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당황한 유호준 목사는 "재판장님, 저는 박 장로와 성경토론을 하러 오지 않았습니디. 저를 박 장로와 성경토론을 시키시면 퇴장을 하겠습니디"라고 흥분된 듯 외치듯이 말했다. 매우 당황했던 모양이다. 그랬더니 재판장은 "유증인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증인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재판장이 증인을 혼계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유호준 목사를 따라왔던 당시 해방총교회 교인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가 사라졌다. 결국 재판장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총회장의 증언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말았다. 또한 박장로를 이번에는 감람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풍풍 묶어 놓으려고 한 계획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9) 불법적으로 영모님 처단 시도

영모님을 구속시킬 때는 영모님을 죽일려는 계획하에 구속을 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보았듯이 사형을 시킬 만한 죄를 억지로라도 씌울 것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급해진 사람들이 영모님을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해치를 계획을 세워야 했던 것이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계셨는데 하루는 저녁 늦은 시간인데 간수가 불

러서 그 간수를 따라갔다. 그 형무소 뒷쪽으로 영모님을 데리고 갔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간수가 실수를 하는 척하면서 어떤 곳에 영모님을 밀어버리는 것이다. 영모님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빠져들었다. 영모님은 온 몸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 간신히 손을 휘저어서 머리를 물위로 내놓을수가있었다. 그런데 역한 풍오를냄새가 진동했다. 그곳에서 기어 나오려고 하니가 얼마나 높은지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다. 손을 들어 바들거리면 거릴수록 오물 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도와줄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아까 데리고 나온 간수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던 어떤 간수가 알고 황급히 달려와서 구출해 주었다. 이것은 영모님이 실수해서 죽은 것으로 하려는 간교한 술책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건이었다. 형무소 풍통에 영모님을 빠뜨려 죽이려고 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합법적으로 아무리 해도 처형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불법적으로 죽일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다.

10) 마귀당 총회(總會)를 결성하다: 모세를 모반한 고리당

영모님께서 육고를 치르시는 동안 영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촌을 중심한 영모님의 가지들의 그 혼란함과 어려움은 입으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영모님을 통하여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사천리 호조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여기며 그저 기쁨과 희망만을 만끽했던 전도관 교인들은 영모님의 육고를 치르시는 동안 실의와 좌절 속에 빠져 허덕이는 모습이 역력하게 눈에 보여졌다. 이런 혼란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교묘히 이용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다.*

損不足以奉有餘(손부족이봉유어): 남은 것에서 보태기 위하여 부족한 것에서 덜어내고 잇소.

孰能有餘 而有以取奉於天者乎(숙능유어 이유이취봉어천자호): 누가 능히 남은 것이 있으면, (하늘의 도)에 따라서 바치기 위해서 그대로 지니고 잇겠는가

唯有道者乎(유유도자호): 오직 도인만이 그럴 수 잇소

是以聖人 爲而弗有(시이성인 위이불유): 그러므로 성인은 행하되 소유함이 없으며

成功而弗居也(성공이불거야): 공을 이루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소.

若此其不欲見賢也(약차기불욕견현야): 이와 같이 성인은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이외다.*

낮은 것은 들어 올리는 것이오.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유여자손지 부족자보지): 남은 것은 덜고 부족한 것은 보태주는 것이다.

故天之道 損有餘而益不足(고천지도 손유여이익부족): 하늘의 도는 남은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곳에 더해 준다.

人之道則不然(인지도칙불연): 인간의 도는 그렇지 않소.

天之道 猶張弓者也

천지도 유장궁자야

하늘의 道는 세계 당겼다가 쏘는 활과 같은 것이라

도덕경 77장 해설

사람다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심오한 종교와 도덕률을 떠나서 흔한 말로 양심적인 사람이다. 왜 양심적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일까? 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남처럼 보지 않고, 또 남처럼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동물과 동물과 인간의 가장 다른 점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든 먹게 하고 싶어 한다.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 한다. 무거운 삶의 짐에 짓눌려 사는 사람은 그 짐을 내려서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고픈 마음뿐이다. 여기에 무슨 국경과 인종, 재산의 유무, 남녀노

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차별 없는 마음,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 처지처럼 생각하는 마음, 못 생명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도심(道心)이요, 천심(天心)이요, 인간의 본심(本心)인 것이다. 도를 안다면서 하늘의 뜻을 안다면서 이러한 근본 이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종이 위에 쓰인 글자만 이해하고 알 뿐인 사람이요, 수박의 껍만 알고 수박의 시원하고 달콤한 속맛은 모르는 사람이다. 또 사람으로서 진짜 알아야 할 글자 속에 감추어진 진의(眞意)는 모르는 채 책만 잔뜩 쌓아 둔 서고(書庫)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태어났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 고통의 멍에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은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한 사람의 그 처절한 몸부림은 애뜻하다. 각자의 인생길에 있어서 지워진 고통을 벗어나기도 힘든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의 짐을 더 지게 한다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알아야 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현인이요, 성인이요, 도인인 것이다. 이 세상이 천하태평(天下泰平)한 세상이 되려면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러한 대자대비하고, 인의에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을 하루 빨리 굳건

히 심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종교와 학문의 근본 취지와 목적인 것이다. 사람이 무섭다고 말하지 말고,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말며, 세상이 여자럽다고 말하지 말지라. 내 마음에 사람다운 사람의 마음인 양심, 본심, 도심, 천심 없음을 아파하고 비통해 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이 세상이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변화는 지름길인 것이다.

天之道 猶張弓者也(천지도 유장궁자야): 하늘의 道는 세계 당겼다가 쏘는 활과 같은 것이라

高者抑之 下者舉之(고자역지 하자거지): 높은 것은 억누르고, 낮은 것은 들어 올리는 것이오.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